

단어 형성과 형태소

최 형 용*

그동안 형태소는 생성형태론의 도입 이후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단어 형성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많은 부분이 형태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형태소는 ‘형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단어 형성의 재료 측면을 형태소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내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단위에서 어근, 어기, 접사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단어 내부의 일관적 분석을 위해 복합적인 내부 구조를 가지는 단어들까지 염두에 둘 때 어근이나 어기, 접사 등을 형태소 그 자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곧 형태소가 여럿이 결합한 것들도 어근이나 어기, 접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처럼 어근을 형태소가 여럿이 결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단어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한국어에서는 여기라는 개념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 구조도 형태소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 짜리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복합어는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복합어인 파생어와 합성어는 형태소의 수만으로는 이를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는 어근이나 접사가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둔다면 형태소의 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직접 성분 개념에 따라 파생어는 직접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단어로, 합성어는 직접 성분이 모두 어근인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어 형성 과정을 형태소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단어 형성 과정은 형태소를 중심으로 할 때 파생과 합성처럼 형태소의 수가 증가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하는 과정, 내적 변화와 영변화처럼 형태소의 수에 변화가 없는 과정, 탈락이나 혼성과 같이 형태소의 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혼성은 특히 절단과 합성이라는 과정을 전제하고 이때 절단되는 것이 반드시 형태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력 단어의 형태소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어근, 어기, 접사,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영변화, 탈락, 혼성, 절단

1. 머리말

본 논의는 단어 형성을 형태소의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태론’의 ‘형태’는 추상적인 형태소의 구체적인 실현형이므로 형태소는 형태론의 중심 연구 대상이라는 사실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소가 문장에서 출발하여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가 ‘확인’되는 단계를 거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분석’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생성형태론 이후 단어는 ‘형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대되면서 특히 최근의 단어 형성의 논의에서는 형태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형태론의 논의에서도 형태소는 그 종류에 대해서 혹은 ‘교체’의 관점에서만 언급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결국 내부 구조를 가지는 단어도 형태소의 결합으로 환원될 수 있고 단어를 이루는 요소들도 형태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어 형성 논의에 있어 형태소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를 중심에 놓고 그동안 정밀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단어 형성의 재료, 단어 구조, 단어 형성 과정의 여러 측면을 형태소를 중심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앞으로 형태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어 형성의 재료와 형태소

대부분의 최근 단어 형성 논의에서 형태소를 중심에 두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어 형성의 재료로 어근이나 접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태소를 중심으로 할 때 어근이나 접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측면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2.1. 어근과 형태소

적어도 한국어의 문법론에서는 어근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견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¹⁾

- (1) 가. ①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이긴 하되, 늘 의존형식이어야 하고 또 굴절 접사(어미)가 직접 결합될 수 없는 형태소.
 ② 어느 경우나 굴절 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이익섭 1975/1993:33-36).
- 나. 복합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실질 형태소. 어근의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는 규칙적 어근과 품사가 명백하지 않아 다른 말과의 통합이 제약되어 있는 불규칙적 어근으로 나누어진다(남기심 · 고영근 2014:189-190).

1) 이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국내외의 어근, 어간, 어기 등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최형용(2002), 노명희(2009), 최형강(2009), 이선웅(2012) 등에서 자세히 제시된 바 있다.

(1가①)은 ‘어미’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굴절 접사’를 이용하여 어근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언어학적 관점의 전통적인 굴절어의 어근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 (1나)는 대표적으로 현재 학교 문법에서 취하고 있는 어근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어근을 ‘형태소’로 한정 짓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²⁾

그러나 (1나)에서 제시된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 가운데 ‘규칙적 어근’은 그 품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불규칙적 어근’은 품사를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1가①)과 (1나)의 어근 개념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가①)의 어근은 형태소이기는 하되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므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단어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파생 접사와 먼저 결합

2) 이익섭(1975/1993: 35-6)에서는 (1가②)에 제시한 것처럼 어근을 ‘단어의 중심부’라고 한 데 대해 ‘나직하다, 거무스름하다’, ‘분명하다, 총명하다’의 ‘나직-, 거무스름-, 분명-, 총명-’처럼 어근의 기능을 가지면서 단일 형태소가 아닌 것들도 알맞은 이름이 없어 어근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1가①)에 제시된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이긴 하되, 늘 의존형식이어야 하고 또 굴절 접사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와 (1가②)에 제시된 ‘어느 경우나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라는 정의는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현재 더 널리 쓰이는 것은 김창섭(1996), 노명희(2005), 홍석준(2015) 등에서도 적시한 것처럼 후자의 정의이다. 그런데 후자의 정의를 사용한 것은 ‘알맞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굴절어에서 쓰는 어근 개념에서 멀어지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전자의 정의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나직-’ 등의 경우도 후술할 ‘도독놈의갈고리’와 같은 경우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1가)의 어근 개념은 형태소 두 개 이상 짜리를 포함하되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앞으로 그 의미에 따라 ‘(1가①)’, ‘(1가②)’, ‘(1가①②)’ 혹은 ‘(1가)’ 등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여기에서 (1가①)에 주목하고자 하는 데는 이익섭·채완(1999), 이익섭(2000)의 논의도 영향을 미쳤다. 가령 이익섭(2000: 115)에서는 어기를 ‘단어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형태소’로 정의하고 접사는 ‘늘 단어의 주변부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형태소’로 정의하고 있고 어근은 ‘어기 중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고 또 자립형식도 아닌 것’만을 국한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어기가 형태소인 이상 어근도 형태소일 수밖에 없다.

해야 하므로 이는 (1나)의 견해에 의하면 ‘불규칙적 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1나)의 어근은 이를 포함하되 품사를 알 수 있는 것 즉 ‘규칙적 어근’을 포함하므로 파생 접사와 먼저 결합하지 않더라도 어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형용사 ‘깨끗하다’와 ‘분하다’ 두 단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2) 가. *깨끗{이, 을, 예}
 가'. 깨끗하{고, 게, 먼}
 나. 분{이, 을, 예}
 나'. 분하{고, 게, 먼}

(2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깨끗-’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1가①②)에 해당한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가')에서 굴절 접사 곧 어미는 파생 접사 ‘-하-’가 결합한 다음에서야 결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나)에 따르면 이때 ‘깨끗-’은 역시 어근이되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없어 그 품사를 알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어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나)의 ‘분(憤)’은 (1가)의 개념에 따르면 어근일 수 없다. 자립성을 가지고 격 조사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나)의 어근 개념에 따르면 이때 ‘분’은 어근이되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품사를 명사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어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섭(1975/1993)에서 어근을 (1가)와 같이 정의한 것은 어떤 동일한 요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근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간으로³⁾ 간주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⁴⁾ 따라

3) 이익섭(1975/1993)에서의 어간은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이다. 따라서 굴절 접사를 어미로 한정하기 전에는 명사도 어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익섭(1968)에 대한 검토에서 드러난다. 이익섭(1968: 476)에서는 어간을 ‘굴절 접사가 연결될 수 있는 형태소나 단어 및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서 ‘분이 풀리다’의 ‘분’이나 ‘분하다’의 ‘분’은 한 순간도 어근일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깨끗하다’의 ‘깨끗-’과 ‘분하다’의 ‘분’이 접미사 ‘-하-’에 대해 가지는 관계의 공통성이다. (1가)의 견해에 따른다면 ‘깨끗하다’에서는 ‘깨끗-’만 어근이고 ‘분하다’의 ‘분’은 어근이 아니므로 접미사 ‘-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범위 매김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섭(1975/1993)의 ‘어기’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기’에 대해 이익섭(1975/1993: 3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어기 : 어근과 어간을 묶는 단어의 핵심부로 접사에 대가 되는 것

이에 따르면 ‘깨끗-’은 어근이므로 어기가 될 수 있지만 ‘분’은 어근도 아니고 어간도 되기 어려우므로 어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익섭·채완(1999: 60-63)에서는 어근이나 어간보다 어기를 전면내세우고 어기를 다시 자립 어기와 의존 어기로 양분하되 의존 어기가 다시 어간과 어근으로 나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때 자립 어기란 ‘잠

수 있는 형식 전부’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섭(1968)에서는 ‘굴절 접사’를 ‘어미’로 한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다. 짐작하건대 이는 이익섭(1968)에서는 ‘굴절 접사’를 어미와 조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쓰다가 이익섭(1975/1993)에 이르러서는 조사를 제외한 어미만 굴절 접사로 간주하여 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섭(1975/1993)에서는 파생어를 ‘그 어간의 IC 중의 하나가 파생 접사인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어간’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익섭·채완(1999)에서의 어간은 그 자체로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의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 4) 그래서 이익섭(1975/1993)에서는 가령 ‘웃-’은 그것이 ‘웃는다, 웃긴다, 웃음, 우습다’의 어디에 결합되어 있건 어간으로만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 5) 따라서 ‘깨끗하다’와 ‘분하다’를 위해서는 접사 ‘-하-’가 우선은 ‘어근이나 단어와 결합한다’고 해야 한다.

보’, ‘피보’의 ‘잠’과 ‘피’처럼 자립 형태소로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분하다’의 ‘분’은 자립 어기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깨끗-’과 ‘분’이 비록 하나는 의존 어기이고 다른 하나는 자립 어기이지만 접미사 ‘-하-’와 가지는 관계의 공통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1나)의 견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접미사 ‘-하-’에 대해 가지는 관계가 흡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건강하다’를 예로 들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 가. 건강{이, 을, 에}

나. 건강하{고, 게, 면}

(4)의 ‘건강’은 (4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명사이며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깨끗하다’, ‘분하다’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1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건강’은 자립 형식이기 때문에 어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3)에서 제기한 어기 개념이나 이익섭·채완(1999)의 확대된 어기 개념으로도 포착할 수 없다. 이번에는 ‘건강’이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깨끗-’과 ‘분’이 어기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자립성 여부에는 비록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의 ‘형태소’라는 조건을 지키기 때문인데 ‘건강’은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어기 개념에서 벗어나고 어근 ‘건-’과 ‘-강’이 결합한 단어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미사 ‘-하-’를 제외한다면 ‘깨끗-’, ‘분’, ‘건강’을 일률적으로 묶기 어렵게 되고 그 종류를 각각 어근, 어기, 단어로 구별해야 한다. 이는 어기를 형태소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익섭·채완(1999)처럼 어간을 어기의 하위 개념으로서 역시 형태소에 한정하게 되면 사실 ‘깨끗하-’, ‘분하-’, ‘건강하-’와 같이 어미를 제외한 부분의 공통성도 아예 포착할 수 없게 된다.⁶⁾

그런데 ‘건강’을 어근으로 묶을 수 없는 것은 (1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1나)도 어근을 형태소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말할 수 없다.⁷⁾ 즉 ‘건강’의 경우는 ‘분’과는 달리 (1나)의 개념에서도 이를 어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다시 (1가)의 견해에서의 어근은 전형적으로 형태소이며 이는 절대적 개념이어서 어떤 단어에서는 어근이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근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1나)의 견해에서의 어근은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1가)에 비하면 상대적 개념이어서 어떤 단어에서는 어근이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근 아닌 다른 존재 가령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단어도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1나)에서의 어근 개념이다.

그렇다면 단어 형성의 논의에서 어근을 형태소로 고정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⁸⁾

(5) 가. 개나리

나. 개도독놈의갈고리⁹⁾

6) 사실 ‘깨끗하-’, ‘분하-’, ‘건강하-’는 형태소라는 조건만 없으면 이익섭(1975/1993)에서 어간을 굴절 접사 곧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어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익섭·채완(1999: 63)의 각주에서도 ‘깨끗하-’를 파생 어간이라 하여 어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7) 그러나 남기심·고영근(2014: 220-221)에서는 합성어가 다시 파생되는 단어 형성의 절차가 있다고 하면서 ‘해돋이’의 ‘해돋-’과 같은 것을 ‘합성 어근’이라 칭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의 ‘건강’도 합성 어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합성 어근’이라는 명칭 자체가 (1나)의 정의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합성 어근’은 ‘실질 형태소 두 개 이상이 어근의 자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8) (5)-(12)에서 제시된 예들과 논의의 일부는 최형용(2016)을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9) 식물 명칭으로서 콩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5)에서 ‘개-’는 접두사로서 (5가)에서는 ‘나리’와 결합하고 있고 (5나)에서는 ‘도둑놈의갈고리’와 결합하고 있다. ‘나리’는 형태소이기는 하되 단어의 자격을 가지므로 (1가①)에 따르면 어근이 아니지만¹⁰⁾ (1나)에 따르면 규칙적 ‘어근’에 해당한다. 한편 ‘도둑놈의갈고리’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므로 (1가, 나)의 논의에 따르면 어근일 수 없다. 단어의 자격을 가지되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단어 형성의 논의에서 어근을 형태소로 간주한 것은 ‘깨끗하다’, ‘분하다’, ‘개나리’와 같이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한 것만을 주로 논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강하다’, ‘개도둑놈의갈고리’와 같은 예들에서의 ‘건강’과 ‘도둑놈의갈고리’가 각각 ‘깨끗-’, ‘분-’ 그리고 ‘나리’와 계열적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중시한다면 형태소의 측면에서 (1가, 나)의 견해를 각각 유지하면서 이를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1가)의 견해에서는 ‘어근’ 개념을 그대로 두되 (3)의 어기 개념을 단어 형성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파생 접사에 대가 되는 요소 가운데 어근을 포함하여 모두 어기로 간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¹⁾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과연 어기 개념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1가①)의 어근 개념은 굴절어의 어근 개념과 흡사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굴절어의 논의에서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안상철(1998)의 논의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0) ‘나리’는 이익섭·채완(1999)에 따르면 ‘분하다’의 ‘분’과 같이 자립 어기의 자격을 갖는다.

11) 사실 이는 어간을, 어미를 제외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끗하다’, ‘분하다’, ‘건강하다’에서 어미 ‘-다’를 제외한 ‘깨끗하-’, ‘분하-’, ‘건강하-’를 형태소의 자립성이나 수와 관련 없이 모두 어간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접미사 ‘-하-’를 제외한 ‘깨끗-’, ‘분-’, ‘건강’을 형태소의 자립성이나 수와 관련 없이 모두 어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 어근 : 어휘의 형성 과정에서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이며 가장 중심적인 요소. 모든 접사를 제외한 핵심적인 형태소

나. 어기 : 새로운 파생이나 굴절 어느 어휘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심(핵심) 요소

다. 어간 : 굴절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중심 요소. 내부 구조상 파생 접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요소.

이에 따르면 가령 영어의 ‘uncountable-s’에서 어근은 ‘count’가 되고 어기로는 ‘count, countable, uncountable’이 되며 어간은 굴절 요소인 ‘s’를 제외한 ‘uncountable’이 된다. 어근은 형태소에 대응하므로 (1가)와 같지만 여기는 경우에 따라 형태소 하나 짜리도 가능하고 여러 개 짜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굴절어에서는 굴절 접사가 결합한 결과나 파생 접사가 결합한 결과가 통사론적으로도 단어라는 점이다. 즉 굴절 접사나 파생 접사는 모두 통사론적 단어 내부를 관심사로 하지만 한국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한국어에서는 파생 접사가 결합한 결과는 통사론적으로 한 단어이지만 굴절 접사에 해당하는 어미나 조사가 결합한 결과는 통사론적으로 한 단어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²⁾

이는 곧 한국어에서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어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굴절 접사 곧 어미와 파생 접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고 보는 (1가)의 관점에서 출발한 확대된 어기 개념은 단어 형성에만 한정하여 어기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12) 이익섭(1975/1993)에서 굴절 접사를 어미에만 한정한 것은 학교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언은 어미를 포함하여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고 조사는 그 자체로도 단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가 구와 결합하는 것처럼 어미도 구와 결합하므로 통사론적으로는 어느 하나만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형용(2016)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어미에도 품사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다음으로 (1나)의 견해에서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깨끗-’, ‘분’, ‘건강’을 같은 단위로 보기 위해서 (1나)의 견해에서는 어근 개념을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방안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불규칙적 어근’과 ‘규칙적 어근’으로 어근을 나누는 것과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규칙적 어근’은 품사를 알 수 없는, 따라서 단어보다 작은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어 형성을 통해서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간접적 존재이지만 ‘규칙적 어근’은 품사를 알 수 있어 단어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단어 형성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 모습이 드러난다.

어근을 형태소 여럿이 모인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은 불규칙적 어근이 반드시 형태소 하나 짜리에 해당하고 반대로 형태소 두 개 이상 짜리는 반드시 규칙적 어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7) 가. 갑작스럽다

가'. *갑작{이, 을, 예}

나. 사랑스럽다

나'. 사랑{이, 을, 예}

(8) 가. 공손스럽다

가'. *공손{이, 을, 예}

나. 감격스럽다

나'. 감격{이, 을, 예}

(7가, 나)의 ‘갑작스럽다’, ‘사랑스럽다’, (8가, 나)의 ‘공손스럽다’, ‘감격스럽다’는 모두 접미사 ‘-스럽-’이 결합한 단어들이다. 그런데 (7가, 나)의 ‘갑작-’과 ‘사랑-’은 모두 형태소 하나 짜리이지만 ‘갑작-’은 (7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없어 단어의 자격을 가지

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사랑’은 (7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8가, 나)의 ‘공손(恭遜)’과 ‘감격(感激)’은 형태소 두 개 짜리이지만 ‘공손-’은 (8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없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대해 ‘감격’은 (8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형태소 하나 짜리도 규칙적 어근으로서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가 하면 형태소 두 개 짜리도 불규칙적 어근으로서 문장 형성에 참여할 수 없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의 관점에서 어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다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형태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형태소 하나 짜리로 이루어진 어근과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근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장 형성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형태소의 자격만을 가지는 어근과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어근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⁴⁾ 이렇게 보면 먼저 (7)에 제시된 ‘갑작-’은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어근이면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근이고 ‘사랑’은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어근이지만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어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8)에 제시된 ‘공손-’은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어근이면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근이고 ‘감격’은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어근이면서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어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장점은 ‘-하-’ 선행 요소나 ‘-스립-’ 선행 요소를 그 내부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어근

13) 이때의 ‘공손-’은 이익섭(1975/1993)에서 제시한 어근 ‘분명-’, ‘충명-’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노명희(2009)에서 이를 복합어근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어근이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는 점만 제외하면 형태소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남기심·고영근(2014)의 불규칙적 어근에,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남기심·고영근(2014)의 규칙적 어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불규칙’이니 ‘규칙’이니 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최형용(2016)에서는 이들 각각을 ‘형태소 어근’, ‘단어 어근’이라 부른 바 있다.

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에서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어미의 존재 때문에 굴절어와는 달리 단어 형성에만 한정하여 형태소 여러 개로 이루어진 어근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결과 자립성과 관련 없이 형태소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으로까지 어근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어근 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형태소에 한정시키는 (6)의 굴절어의 어근 개념과 차이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기왕의 개념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근 개념은 어근을 형태소와 일대일로 대응시키고 있는 (1가, 나) 모두와 차이를 갖는데 이것은 곧 형태소의 수로는 어근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⁵⁾

2.2. 접사와 형태소

형태소와 관련된 접사의 문제는 어근의 경우와 흡사하지만 양상은 차이가 있다. 이익섭(1975/1993)에서는 접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접사에 굴절 접사가 포함되므로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15) 이는 결과적으로는 어근이 어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선웅(2012: 45)에서는 이익섭(1975/1993)과 같은 견해를 ‘항목주의’라 불러 ‘체(體)’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어근이 어간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용도주의’라 불러 ‘용(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최형용(2002)에서 어근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가령 ‘짓밟히다’와 같은 단어에서 ‘짓-’과 결합하는 ‘밟히-’나 ‘-히-’와 결합하는 ‘짓밟-’과 같이 내부 구성을 더 가져 (1나)의 어근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에도 범주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가변적이지만 한국어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익섭(1975/1993)의 어기가 어근과 어간을 포괄하고 어간은 어근과는 달리 문장 형성 층위에서 논의된다면 이 두 가지 즉 단어 형성과 문장 형성을 한데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상정한 어근 개념은 굴절어의 어근 개념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어기라고 보아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루어진 접사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⁶⁾

그러나 본고에서의 접사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파생 접사만 해당하고 또한 파생 접사 가운데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대표적이므로 이것이 형태소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남기심·고영근(2014: 189)에서는 접사를 ‘복합어의 형성에 참여하는 형식 형태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어근과 마찬가지로 접사도 하나의 형태소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1. 접사화와 형태소

한국어 접사 가운데 접두사의 경우는 대체로 하나의 형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접사화한 것 가운데 조사 결합형이나 어미 결합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9) 가. ‘쇠-’

나. ‘웃-’

나. ‘헛-’

나. ‘숫-’, ‘똥-’, ‘헛-’

(9)의 예들은 기원적으로 조사였던 것이 접두사화와 관련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가)의 ‘쇠-’는 중세 한국어 ‘쇼(𪎮)’에 관형격 조사 ‘ㅣ’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이 발달한 것이다. 이것을 접두사로 간주할 수 있는

16) 본고와 관련하여 이익섭(1973/1993: 36)에서 주목할 언급은 전술한 것처럼 ‘나직-, 거무스름-, 분명-, 총명-’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접사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특히 통시론적인 입장을 가질 때 단일 형태소가 아닌 것은 접사가 아니라는 제약이 있다면 기술에 있어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겠기 때문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파생 접미사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것은 ‘쇠귀신, 쇠꼴, 쇠등에’ 등과 같이 문장 형식인 ‘소의 X’로 환원될 수 없는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9나, 나', 나'')은 모두 기원적으로 통사적 요소였던 사이시옷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9나)의 ‘웃-’은 현대 한국어 ‘위(上)’의 중세 한국어 ‘우’에 사이시옷이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웃돌다, 웃보다, 웃자라다, 웃치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사이시옷 구성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접두사의 자격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나')의 ‘헛-’도 사이시옷 구성이 접두사화한 것이고 역시 명사뿐만이 아니라 ‘헛살다, 헛디디다, 헛보다, 헛먹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와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웃-’과 동일하지만 기원적으로 ‘허(虛)’는 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나'')의 ‘숫-’, ‘푯-’, ‘헛-’도 사이시옷 구성이 접두사화한 예이되 ‘숫-’, ‘푯-’은 ‘숫되다’, ‘푯되다’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명사와 결합하고 ‘헛-’은 아예 동사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숫-’은 ‘수컷’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수’에 사이시옷이 결합하여 접두사화한 것이고 ‘푯-’은 ‘풀(草)’에 사이시옷이 결합하여 접두사화한 것이다. 그리고 ‘헛-’은 ‘해(年)’에 사이시옷이 결합하여 접두사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용언과의 결합이 접두사화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9나, 나')의 예들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미 결합형이 접두사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0) 가. ‘민-’(‘민얼굴, 민저고리’), ‘한-’(‘한겨정, 한길’)

나. ‘선-’(‘선무당, 선잠’), ‘잔-’(‘잔심부름, 잔털’)

(10)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 결합형이 접두사화한 경우이다. (10가)의 ‘민-’은 중세 한국어 ‘미다’의 관형사형 ‘민’에서 단모음화를 겪은 것이고 ‘한-’은 중세 한국어 ‘하다(大)’의 관형사형이 접두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들 ‘민-’이나 ‘한-’은 기원형인 ‘미다(<피다)’, ‘하다’가 현대 한국어

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어 용언과의 유연성(有緣性)을 완전히 상실한 데 비해 (10나)의 ‘선-’이나 ‘잔-’은 용언 ‘설다’나 ‘잘다’와의 유연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9), (10)에서 보이는 조사 혹은 조사 관련 요소나 어미에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 형태소의 자격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9가)에서 보이는 관형격 조사는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9나, 나’, 나”)에서 보이는 사이시옷은 이미 관형적 조사로서의 용법을 잃었거니와 그 결합형이 용언과도 결합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역시 합성 명사에 나타나는 사이시옷과도 관계가 멀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0)에 포함된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가)에서의 관형사형 어미는 그 어간이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고 (10나)의 관형사형 어미도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그 의미적 유연성은 완전히 상실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구성에서 다른 어미와 계열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9), (10)의 접두사들은 기원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와 관련을 맺을 수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접미사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1) 가. ‘-내기’(‘서울내기, 신출내기’)

나. ‘-다랗-’(‘굵다랗다, 짙다랗다’)

다. ‘-토록’(‘그토록, 평생토록’)

(11)은 통사적 구성과 관련된 접미사화의 예인데 (11가)의 ‘-내기’는 동사 ‘나(出)-’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은 ‘나기’가 ‘ㅣ’모음 역행동화를 일으켜 접미사가 된 것이다.¹⁷⁾ 명사형 전성 어미 ‘-기’는 일차적

으로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지만 그 동작을 한 결과가 사람의 의미도 가지는 일이 적지 않다. ‘소매치기’, ‘양치기’ 등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기’는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의미를 가져 ‘서울내기’, ‘시골내기’와 같은 단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출내기’, ‘여간내기’에서는 ‘-내기’가 ‘지역’과의 유연성(有緣性)이 멀어지고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접미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나)의 ‘-다랗-’은 통사적 구성 ‘-다라 하-’가 축약되어 접미사화한 것이다. 이를 접미사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합하는 형용사가 우선 제한적이고 ‘깊다랗다, 높다랗다, 머다랗다’ 등에 대해 “얕다랗다, *낮다랗다, *가깝다랗다’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단어 형성이 가지는 전형적인 비대칭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11다)의 ‘-토록’은 ‘하도록’이 축약되어 접미사화한 경우이다. ‘-토록’을 ‘하-’와 ‘-도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접미사화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영원하도록’으로 환원되는 ‘영원토록’과는 달리 ‘그토록’, ‘종신토록’은 *그하도록, *종신하도록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⁸⁾

다음은 사이시옷 구성이 접미사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꾼’(‘심부름꾼, 낚시꾼’)

(12)의 ‘-꾼’은 원래 ‘군사(軍士)’ 혹은 ‘군졸(軍卒)’의 의미를 가지던 ‘군(軍)’이 사이시옷과 결합하여 경음화를 겪은 것이다. 이는 ‘군’이 ‘군사’나 ‘군졸’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로 확대되어 접미사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17) 이러한 형태 변화는 해당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술하는 ‘-둥이’, ‘-쟁이’ 등도 마찬가지이다.

18)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토록’을 조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이를 조사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토록’이 부사나 어미와 결합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사구와의 결합을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꾼’이 ‘군사’의 의미를 가지는 일은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1)과 (12)에서의 접미사들은 형식이나 의미가 현저히 특수화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9), (10)과 같이 기원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결합체를 모두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2.2.2. 접미사와 형태소

그러나 접미사의 경우에는 형태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13) 가. ‘-당하-’(‘거절당하다, 무시당하다’)
 가. ‘-장이’(‘간판장이, 뺨장이’)
 나. ‘-(으)ㄴ직스럽-’(‘먹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나. ‘-(으)ㄴ직하-’(‘먹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나. ‘-스레하-’(‘거무스레하다, 넓적스레하다’)
 나. ‘-스름하-’(‘거무스름하다, 넓적스름하다’)
 다. ‘-맞이’(‘달맞이, 손님맞이’)
 다. ‘-박이’(‘접박이, 금니박이’)
 다. ‘-붙이’(‘살붙이, 피붙이’)
 다. ‘-살이’(‘감옥살이, 타향살이’)
 다. ‘-잡이’(‘고기잡이, 고래잡이’)

(13)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미사로 간주되는 것들인데 (9)-(12)와는 달리 통사적 구성과는 상관이 없거나 그 양상이 구별되면서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접미사로 간주된다면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한 접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예들이 될 수 있다.

(13가, 가')은 한자가 관여한 것인데 (13가)에서 ‘-당하다’의 ‘-당(當)’, (13가')에서 ‘-장이’의 ‘-장(匠)’이 이에 해당한다.¹⁹⁾ (13가)의 ‘-당하다’를 동음의 ‘당하다’와 달리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피동’의 의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절당하다’나 ‘무시당하다’가 모두 ‘거절을 당하다’, ‘무시를 당하다’로 의미 차이 없이 환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미사로 간주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3가')의 ‘-장이’에서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이고 ‘-장(匠)’은 한자로서 이 역시 ‘기술자’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선행 요소가 한자어일 경우 아직 다음과 같이 ‘-장’만으로도 ‘-장이’와 공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14) 간판장이 - 간판장, 유기장이 - 유기장, 도채장이 - 도채장, 모의장이 - 모의장, 소목장이 - 소목장, 염장이 - 염장, 옥장이 - 옥장, 웅기장이 - 웅기장, 은장이 - 은장, 인식장이 - 인식장, 조궁장이 - 조궁장, 토기장이 - 토기장

따라서 접미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당하다’와는 달리 적어도 위의 경우에는 ‘-장’과 ‘-이’에 각각 형태소 자격을 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²⁰⁾

(13나, 나')의 ‘-(으)ㄴ직스럽-’과 ‘-(으)ㄴ직하-’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이들을 ‘-(으)ㄴ직-’과 나

19) 전술한 ‘-둥이’의 ‘-둥’도 한자 ‘-둥(童)’에서 왔지만 이미 형태 변화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장이’만 다루고 ‘-쟁이’를 다루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20) 물론 ‘갓장이’와 같이 선행 요소가 고유어인 경우와 선행 요소가 한자어라도 ‘-장이’와 ‘-장’이 동의어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이’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한편 형태소의 자격을 줄 수 있는 ‘-장’의 지위는 접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여기서는 이것의 형태소 여부가 중요하므로 그 지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머지 ‘-스럽-’, ‘-하-’로 나누어 왔다. 즉 ‘-(으)ㄴ직-’에 대해서는 시제 요소가 개입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되 시제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것만을 접미사로 간주한 것이다(김창섭 1985:165-166). 이때의 ‘-(으)ㄴ’은 어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²¹⁾ 이들도 (9), (10)의 논의와 연관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으)ㄴ직스럽-’이나 ‘-(으)ㄴ직하-’는 최대한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 ‘-스럽-’과 ‘-하-’에 접미사 자격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적어도 ‘-(으)ㄴ직-’과 ‘-스럽-’ 혹은 ‘-(으)ㄴ직-’과 ‘-하-’로 분석하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럽-’이나 ‘-하-’를 제외한 ‘믿음직-’이나 ‘먹음직-’이 단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믿음직-’이나 ‘먹음직-’은 어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으)ㄴ직-’도 지위를 부여한다면 접미사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의 ‘-(으)ㄴ직-’을 이른바 ‘어근 형성 접미사’로 간주하게 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다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으)ㄴ직-’을 ‘어근 형성 접미사’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가령 ‘믿음직-’도 어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1나)의 어근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술해 온 바와 같이 (1나)의 어근은 형태소 하나 짜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접미사에 대한 정의이다. 접미사는 통상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정의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 아닌 ‘새로운 어근’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그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접미사를 정의하려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으)ㄴ직스럽-’이나 ‘-(으)ㄴ직하-’를 통째로 하나의 접미사로 간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접미사를 인정

21) ‘-직-’과 ‘-(으)ㄴ직-’은 ‘-이’ 부사 파생과 ‘-스럽-’ 형용사 파생에 있어서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송철의(1992: 113-115)를 참조할 것. 한편 ‘-(으)ㄴ직-’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통시적 고찰은 장윤희(2001)에 자세하다.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우는 다르지만 (13나", 나")의 ‘-스레하-’, ‘-스름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²⁾

한편 (13다, 다', 다", 다", 다")의 예들은 이른바 ‘NV이’형 통합 합성어(synthetic compound)와 관련된 것들 가운데 ‘-V이’가 접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V이’가 접미사로 간주된다면 이때 ‘-V이’가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3다, 다', 다", 다", 다")에서 ‘-V이’를 접미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13다, 다', 다", 다", 다")에서 접미사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남의집살다’와 같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합성 동사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²³⁾

- (15) 가. ‘-맞이’ : *달맞다, *손님맞다 ...
 나. ‘-박이’ : *점박다, *금니박다 ...
 다. ‘-붙이’ : *살붙다, *쇠붙다 ...
 라. ‘-살이’ : *감옥살이, *타향살다 ...
 마. ‘-잡이’ : *고기잡다, *고래잡다 ...

다른 하나는 ‘-V이’가 (15)의 경우들과는 달리 ‘NV-’를 상정하기 어려울 만큼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 (16) 가. ‘-박이’ : 장승박이, 본토박이 ...
 나. ‘-붙이’ : 쇠붙이, 금붙이 ...

22) 그런데 흥미롭게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령 ‘믿음직하다’의 경우 ‘믿음직-’은 ‘믿음직하다’의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음직하다’도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거무스레하다’의 경우에도 ‘거무스레-’를 ‘거무스레하다’의 어근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스레하다’를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23) 대신 이들은 ‘달맞이하다’, ‘손님맞이하다’처럼 ‘NV이하다’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의집살이’의 경우 ‘남의집살다’도 존재하고 ‘남의집살이하다’도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 ‘-살이’ : 종살이, 가난살이 ...

라. ‘-잡이’ : 총잡이, 칼잡이 ...

(16)에서의 ‘-V이’는 선행하는 ‘N’과의 의미 관계가 (15)의 경우들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고 따라서 그 의미도 특수화를 겪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13다, 다’, 다”, 다”, 다”)의 ‘-V이’는 접미사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V이’는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접미사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²⁴⁾

이상 (13)의 예들에 대한 검토는 접미사를 하나의 형태소로 묶어 두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어근을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실질 ‘형태소’로 한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접사도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형식 ‘형태소’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미사를 형식 형태소로 간주하려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은, 어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형태소 하나 짜리인 접미사를 대상으로 삼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단어의 구조와 형태소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형적으로 어휘적 단어를 그 구조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다고 할 때 이들을 형태소와 관련하여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위해 앞에서 논의한 어근과 접사의 특성을 형태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24) 물론 ‘-박이’의 경우 ‘박이웃’과 같은 단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17) 가. 어근 : 단어를 구성하는 중심부로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접사 : 단어를 구성하는 주변부로서 특히 접미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17)은 ‘어근’과 ‘접사’에 대한 엄밀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심부’나 ‘주변부’는 모두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어근의 경우 형태소 하나 짜리라도 단어일 수 있고 어근과 접사 모두 형태소가 둘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1가)와도 다르고 (1나)와도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단일어 및 복합어와 형태소

그렇다면 이러한 언급이 단어의 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단일어는 내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 단어이다. 내부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17가)의 어근 개념으로는 이를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단일어를 《표준국어대사전》처럼 ‘실질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어근에는 형태소 두 개 이상이 결합한 것도 존재한다고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어를 어근과 관련하여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어근 가운데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5) 연구자들에 따라 어근과 접사, 단일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후술할 파생어, 합성어에 대한 정의에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을 일일이 들어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려니와 그럴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도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표준국어대사전》만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다면 복합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합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8) 복합-어(複合語)

『명사』 『언어』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덧신’, ‘떡이’와 같은 파생어와, ‘집안’, ‘공부방’과 같은 합성어로 나뉜다.

그런데 (18)과 같이 복합어를 정의한다면 (5나)에서 제시한 바 있는 ‘개도독놈의갈고리’와 같은 단어는 설명하기 어렵다. ‘개도독놈의갈고리’는 ‘도독놈의갈고리’가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개-’가 접사이므로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은’ 단어도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실질형태소가 결합된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이 단어는 ‘개나리’와 동일한 파생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합어를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은 것’이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 가지는 공통점은 복합어가 결국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개도독놈의갈고리’도 단일어가 아니라 복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로 그 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복합어에 대한 (18)의 정의가 ‘개도독놈의갈고리’와 같은 단어를 만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복합어에 대한 정의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 제시하려는 데 원인이 있다. 즉 파생어에 대한 정의가 ‘하나의

26) ‘도독놈의갈고리’라는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형성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접두사 ‘개-’에 대해 가지는 자격이다. 따라서 ‘도독놈의갈고리’라는 단어의 형성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합성어에 대한 정의가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로 만족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묶어 복합어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2. 파생어와 형태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파생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

(19) 파생-어(派生語)

『명사』 『언어』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뒹-'에 접미사 '-개'가 붙은 '뒹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덧-'이 붙은 '덧버선' 따위가 있다.

(19)는 (18)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따르면 역시 '개도독놈의갈고리'를 파생어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복하지만 '도독놈의갈고리'가 그 자체로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도독놈의갈고리'도 '개나리'와 똑같은 파생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접 성분(immediate constituent, IC)'의 개념이다.²⁷⁾ 주지하는 바와

27) 이처럼 파생어나 후술할 합성어를 정의내릴 때 '직접 성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교롭게도 이익섭(1975/1993)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익섭(1975/1993: 41)에서는 '파생어'를 '그 어간의 IC 중의 하나가 파생 접사인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합성어(이익섭(1975/1993)에서는 '복합어')는 '그 어간의 IC가 모두 어기(어근 및 어간)이거나 그보다 큰 형식인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어간'을 '어미'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굴절어의 어기도 한국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이들을 제외한다면 그 기

같이 직접 성분은 구조가 복잡한 구성을 계층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먼저 갈라지는 두 요소를 일컬으므로 ‘개나리’와 ‘개도둑놈의갈고리’를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게 해 준다.

(20) 가. [개[나리]]

나. [개[도둑놈의갈고리]]

즉 (20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나리’의 직접 성분이 ‘개-’와 ‘나리’인 것처럼 (20나)의 ‘개도둑놈의갈고리’도 직접 성분이 ‘개-’와 ‘도둑놈의갈고리’로서 ‘나리’가 ‘도둑놈의갈고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해 준다. 이때 ‘나리’와 ‘도둑놈의갈고리’는 모두 어근의 자격을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접사가 접미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가운데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동일하다. 따라서 가령 ‘칼잡이’와 같은 단어는 직접 성분이 ‘칼’과 ‘-잡이’이고 ‘-잡이’가 내부 구조를 더 가지더라도 접미사의 자격을 가지므로 ‘칼잡이’를 파생어라고 간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분석을 따른다면 파생어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1) 파생어 : 직접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단어

(21)은 곧 형태소 개념만으로는 파생어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야 ‘생이별’, ‘잔소리꾼’과 같은 단어들도 파생어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이들이 파생어인 이유는 ‘생이별’의 직접 성분이 ‘생-’과 ‘이별’이고 ‘잔소리꾼’의 직접 성분이 ‘잔소리’와 ‘-꾼’이므로 어근이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본 정신은 본고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과는 상관없이 접두사나 접미사 즉 접사가 직접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²⁸⁾

3.3. 합성어와 형태소

파생어와 마찬가지로 합성어에 대한 뜻풀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합성-어(合成語)

『명사』 『언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22)에서는 합성어를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정의하되 이를 ‘둘’로 명시하지 않고 ‘둘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비록 세 개 이상의 형태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성어로 간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3) 집안사람, 집안귀신, 집안일, 한집안 …

(23)은 ‘집안’을 공통 요소로 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본 것인데 ‘집안사람’은 ‘사람’, ‘집안귀신’은 ‘귀신’, ‘한집안’은 ‘한’이 더 있고 이 가운데 ‘귀신’은 다시 ‘귀-’과 ‘-신’으로 더 나뉘기는 해도 모두 어근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22)의 기준에 따른다고 해도 합성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사정이 다르다.

2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두사 ‘생-’ 항에 ‘생이별’과 같은 예들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별’은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9)의 정의를 스스로 여기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24) 가. 말먹이, 먹이양, 저녁먹이 ...

나. 높이높이, 길이길이

(24가)는 파생어 ‘먹이’가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한 것이고 (24나)는 각각 파생어 ‘높이’와 ‘길이’가 반복되어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들에서 ‘먹이’의 ‘-이’나 ‘높이’, ‘길이’의 ‘-이’는 접미사에 해당하므로 (22)에 따르자면 이들 모두를 합성어로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24)의 예들은 모두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직접 성분 분석에 따르면 가령 ‘말먹이’는 ‘[말[먹이]]’로 분석되므로 직접 성분이 ‘말’과 ‘먹이’이고 마찬가지로 ‘높이높이’는 ‘[높이[높이]]’로 분석되므로 직접 성분이 ‘높이’와 ‘높이’이며 이때 ‘먹이’, ‘높이’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명사로서 어근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어도 파생어와 마찬가지로 이를 형태소로는 정의할 수 없고 직접 성분의 지위에 따라서만 그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합성어 : 직접 성분이 모두 어근인 단어

이제 (21)과 (25)를 참고하면 ‘말먹이’는 파생어가 다시 합성어 형성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말’과 ‘먹이’는 모두 어근의 자격을 가지되 ‘말’은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어근이고 ‘먹이’는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어근이 된다. 마찬가지로 ‘높이높이’는 파생어의 합성에 의해 형성된 단어인데 이때 ‘높이’는 어근의 자격을 가지되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어근이 되는 것이다.²⁹⁾

29) 어근을 형태소에 한정시키는 (1가, 나)의 견해에서는 이와 같이 내부 구조가 복잡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근 대신 어근보다 더 큰 단위를 도입하여 이를 정의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전술한 이익섭(1975/1993: 41)에서도 그랬지만

4. 단어 형성 과정과 형태소

이제 여기에서는 앞서 형태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어근, 접사, 단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등과 단어 형성 과정이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4.1. 파생 및 합성과 형태소

앞서 단어 구조의 측면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파생어를 만드는 과정을 파생이라 하고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할 때 이들의 단어 형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26) A + B \rightarrow AB$$

전술한 바와 같이 파생은 내부 구조를 가지더라도 A나 B가 접사인 단어이고 합성은 A와 B가 어근인 단어이다. 그런데 이를 형태소의 관점에서 보자면 궁극적으로 형태소의 결합으로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 파생과 합성이며 파생과 합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단어의 형태소의 수는 재료가 되는 형태소의 수를 합친 것과 같다. 이를 A나 B의 관점에서 보자면 출력 단어 AB는 결합을 거치면서 형태소의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생이든 합성이든 전형적인 경우는 형태소의 수가 증가하는 단어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태소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단어 형성 과정이 형태소의 증가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다. 형태소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이익섭·채완(1999: 68)에서도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기이거가 그보다 더 큰 언어 단위”처럼 ‘더 큰 언어 단위’에 대해 따로 언급해 준 것이다. 그러나 어근을 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면 이처럼 ‘더 큰 언어 단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수 있고 형태소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4.2. 내적 변화 및 영변화와 형태소

형태소의 관점에서 볼 때 형태소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에는 이른바 ‘내적 파생’과 ‘영파생’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각각을 (26)을 참고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7) AaB \rightarrow Aa'B$$

$$(28) [A]_X + \emptyset \rightarrow [A]_Y$$

(27)은 내적 파생을 도식화한 것인데 내적 파생은 가령 ‘반짝반짝’과 ‘번쩍번쩍’에서 보이는 모음 교체나 ‘감감’과 ‘깜깜’에서 보이는 자음 교체를 파생의 범위 내에서 바라보려는 논의이다. 따라서 (27)에서 ‘a, a’’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음이나 모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들 ‘a, a’’은 그 자체로 형태소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³⁰⁾ 이는 형태소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정의적 속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구별되는 단어 곧 의미 차이가 나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때 교체되는 자음이나 모음에 형태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이유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으로, 교체되는 ‘a, a’’은 직접 성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내적 파생을 ‘파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짝반짝’과 ‘번쩍번쩍’, ‘감감’과 ‘깜깜’이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조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

30) 물론 자음이나 모음이 그 자체로 형태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은 자음이 형태소인 예이고 ‘아, 어’ 등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감탄사들은 모음이 형태소인 예에 해당한다.

다. 최형용(2003, 2013)에서는 이들을 ‘내적 변화’라 하여 ‘파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한 바 있다. 내적 파생과 내적 변화의 차이는, 내적 파생이 일종의 결합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내적 변화는 이를 일종의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8)은 영파생을 도식화한 것인데 영파생은 가령 명사 ‘오늘’이 부사 ‘오늘’로도 쓰인다고 할 때 이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포착하기 위해 영접미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접미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품사의 변경이다. 다시 말하자면 명사 ‘오늘’을 부사 ‘오늘’로 바꾸는 데 영접미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화를 주장하는 논의에서도 부사 ‘오늘’은 영접미사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복합어, 그 가운데 파생어라고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파생은 영접미사를 도입하여 품사의 변경을 파생이라는 단어 형성 과정으로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파생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이는 곧 영파생에 관여하는 영접미사도 직접 성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내적 파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사 ‘오늘’과 부사 ‘오늘’을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형용(2003, 2013)에서는 이를 ‘영변화’라 하여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다룬 바 있다. 내적 파생에 대한 내적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접미사를 설정하는 영파생이 단어 형성을 결합에 의해 설명하려는 관점이라면 영변화는 단어 형성을 결합이 아니라 대치로 설명하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적 변화와 영변화 개념은 형태소의 분석, 나아가 단어의 구조에 대

31) 여기서는 형태소와 관련하여 영파생의 문제점을 언급해 보았지만 영파생을 위한 영접미사는 형식적으로는 무표적이지만 체계적으로는 유표적이라는 점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해서도 올바른 예측을 하게 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내적 파생과 영파생은 모두 형태소가 증가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직접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접미사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생어의 분석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단어 구조의 측면에서만 보면 ‘번쩍번쩍’과 ‘반짝반짝’은 모두 직접 성분이 어근인 합성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깜깜’과 ‘깜깜’은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명사로서의 ‘오늘’이나 부사로서의 ‘오늘’도 모두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²⁾

4.3. 탈락 및 혼성과 형태소

내적 변화와 영변화가 형태소의 관점에서 그 수의 변화가 없는 단어 형성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형태소의 관점에서 그 수가 줄어드는 단어 형성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탈락’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이 아닐까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2)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단어 구조’와 ‘단어 형성’은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어 구조’는 어디까지나 단어 개별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하여 ‘분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합성어나 파생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각각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되지만 항상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항상 합성어나 파생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정한 패턴이 일반화하면 하나의 틀(scheme)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새로운 단어가 결합이 아니라 대치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경우 단어 형성 방법은 파생이나 합성과 같은 결합이 아니라 대치이지만 그 결과로 형성된 단어는 파생어나 합성어로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결합이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파생어나 합성어가 아닐 수도 있다. 최형용(2003, 2016) 등에서 설정한 ‘때로, 되도록’과 같은 통사적 결합어가 이러한 예가 된다. 이들은 모두 조사와 어미가 결과적으로 어휘적 단어 형성에 참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조사와 어미는 직접 성분이 되면서 그 지위가 접미사나 어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로 분류하기 어렵다.

(29) $AB \rightarrow A$

탈락에 의한 단어 형성은 합성이나 파생에 비하면 그 수가 현저히 적기는 하지만 ‘새삼스레’에서 온 ‘새삼’, ‘급거히’에서 온 ‘급거’처럼 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에서 온 ‘좀’도 역시 이러한 탈락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나 ‘좀’이 모두 단일 형태소라는 점에서 형태소가 탈락한 ‘새삼’과 ‘급거’와는 차이가 있다.³³⁾ ‘새삼스레’에서 온 ‘새삼’은 단일어이고 ‘급거히’에서 온 ‘급거’는 합성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의 경우에서, 탈락한 ‘-스레’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뒤의 경우에서 탈락한 ‘-히’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차이라면 차이이다.

이른바 혼성도 형태소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탈락의 경우와 함께 다룰 수 있다. 노명희(2010)에서는 혼성어를 절단되는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³⁴⁾

(30) 가. $AB+CD \rightarrow AD$ (개그맨 + 아나운서 \rightarrow 개그운서)

나. $AB+CD \rightarrow ABD$ (김치 + 할리우드 \rightarrow 김치우드)

다. $AB+CD \rightarrow ACD$ (컴퓨터 + 도사 \rightarrow 컴도사)

33) 이들은 모두 부사 형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동안 탈락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최형용(2009)를 참고할 것.

34) 노명희(2010)에서는 합성 이전의 두 단어가 가지는 지시 대상의 속성을 모두 갖는 경우는 두음절이라 하여 그렇지 않은 것만을 혼성어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의미합성성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인데 합성어임이 분명한 것들 가운데도 의미합성성을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두음절어도 혼성어로 간주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아침 + 점심 \rightarrow 아점’은 두음절어의 방법을 취하되 의미합성성을 지키지 않으므로 노명희(2010)의 견해에서도 혼성어로 간주해야 할 듯한데 (30)에서는 이러한 예는 유형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명희(2010)은 혼성어 전체의 유형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혼성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유형화와 인지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이찬영(2016)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 $AB+CD \rightarrow BD$ (아줄마 + 신데렐라 \rightarrow 줌아렐라)

그런데 혼성도 형태소와 관련하여 그 양상이 단순하지 않다. 노명희(2010)의 언급처럼 혼성은 그 과정에서 절단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합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형태소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절단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절단이 반드시 형태소를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된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³⁵⁾

이를 (30)에 제시된 경우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그운서’와 ‘김치우드’의 경우 선행 요소 ‘개그’, ‘김치’에는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후행 요소 ‘운서’, ‘우드’에는 형태소의 자격을 주기가 어렵다.³⁶⁾ 다음으로 ‘컴도사’는 선행 요소에는 형태소의 자격을 주기가 어렵지만 후행 요소는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³⁷⁾ 마지막으로 ‘줌아렐라’의 경우에는 선행 요소뿐만 아니라 후행 요소에도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경우여서 ‘줌마’에도 ‘렐라’에도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중시한다면 혼성어는 하나의 형태소나 혹은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절단을 겪어 형태소의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태소의 수에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혼성도 앞의 탈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태소의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³⁸⁾

그러나 형성 과정에서는 합성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어 구조의 측면에서는 (25)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35) 따라서 (30)의 유형화에 나타난 ‘A, B’ 등은 대체로 형태소 이상을 의미하는 (26), (27), (28), (29)의 ‘A, B’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6) ‘웃기다’와 ‘슬프다’의 혼성으로 이루어진 ‘웃프다’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7) 물론 ‘도사’는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어근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8) 절단되는 것이 형태소라면 이는 당연히 형태소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서 앞서 탈락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어 구조 분석이 힘든 경우가 혼성어라고 할 수 있다.

(30)에는 외국어나 외래어가 포함된 요소만 제시되어 있지만 최형용(2016: 318)에서 제시한 ‘들기름’, ‘참기름’, ‘질그릇’, ‘질화로’도 (30)의 테두리에서 다룰 수 있어 보인다. 그 의미를 볼 때 각각 ‘들깨’, ‘참깨’, ‘질흙’에서 ‘깨’와 ‘흙’이 단어 형성 과정에서 절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탈락한 것은 모두 형태소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그 유형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30다)와 평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다)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갑이별’과 같은 단어는 그 절단이 형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갑이별’은 그 의미가 ‘갑자기 헤어짐’이라는 점에서 이때 ‘갑’은 ‘갑작’에서 ‘작’이 절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갑작’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갑’은 그 자체로는 형태소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0다)와 평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중시한다면 혼성어는 그 과정은 형식화할 수 있으나 출력인 단어에 대해서는 형태소에 기반을 둔 어근이나 접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일어와 복합어 개념으로는 단어 구조 분석이 매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혼성어는 형태소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 구조 분류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³⁹⁾

39) 이러한 측면에서 절단과 ‘합성’으로 혼성을 파악한 노명희(2010)과는 달리 이찬영(2016)에서는 절단과 ‘결합’으로 혼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형태소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가.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의 재료로서 각각 형태소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어근과 접사 가운데는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적지 않다.

나. 단일어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복합어는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에 대해 파생어는 직접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단어이며 합성어는 직접 성분이 모두 어근인 단어이다.

다. 파생과 합성은 형태소가 증가하는 단어 형성 과정이고 내적 변화와 영변화는 형태소의 수에 변화가 없는 단어 형성 과정이며 탈락은 형태소의 수가 줄어드는 단어 형성 과정이다. 혼성은 출력물인 혼성어의 형태소 분석이 매우 까다롭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형태소의 수가 줄어드는 단어 형성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31가)는 단어 형성의 재료인 어근과 접사를 형태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근의 경우를 형태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면 한국어에서는 여기라는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1나)는 단어 구조의 측면에서 단일어와 복합어는 형태소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1다)는 단어 형성 과정을 형태소의 관점, 특히 그 수의 증감에 따라 정리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파생과 합성처럼 소속 항목이 가장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내적 변화, 영변화,

탈락, 혼성과 같은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즉 파생과 합성을 포함하여 내적 변화, 영변화, 탈락, 혼성 등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되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단어 형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형태소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보다 논의를 정밀화하고 일관적으로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형태소의 분석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단어 구조 분석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혼성과 혼성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해 보았다. 이는 형태소가 단지 ‘분석’의 결과물로서의 역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

참고문헌

- 김창섭(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149-176.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남기심 · 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탑출판사.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09),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37-1, 59-84.
- 노명희(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255-281.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안상철(1998), 《형태론》, 민음사.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473-483.
- 이익섭(1975/1993),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형태》, 태학사, 25-43.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개정판), 학연사.
- 이익섭 ·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찬영(2016), 혼성어 형성에 대한 인지적 고찰, 《형태론》 18-1, 1-27.
-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하-’의 문법사, 《형태론》 3-1, 1-21.
- 최형강(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33-60.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301-318.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09),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3-26.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홍석준(2015), 국어 색채형용사의 어휘형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 MIT Press.
- Bauer, L.(1988), *Introducing Linguistic Morphology*,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 Arnold.
-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 Foris.(전상범 역(1987),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3277-3942

E-mail: chy@ewha.ac.kr

투고 일자: 2017. 01. 31.

심사 일자: 2017. 02. 18.

게재 확정 일자: 2017. 03. 08.

Word-formation and Morpheme

[Choi, Hyung-Yong]

단어 형성과 형태소 [최형용]

Morpheme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word-formation after generative morpholgy which does not place high value on ‘analysis’. However, morpheme is still an important element in word-formation in that it takes part in word-formation especially in the view of ‘formation’.

Firstly, morpheme can be examined as materials of word-formation. So far, root, base and affix have been defined as a kind of morpheme. These definitions are only valid for the words which have simple internal structure. However, to analyze the word-internal structure consistently including the words with complex internal structure, we need to recognize that those units are not equal to morpheme. That is, roots and affixes can be made up of more than one morpheme. As a result, in Korean, which is an agglutinating language, base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established.

Secondly, morpheme can be observed in terms of word structure.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in that simple words are consisted of one morpheme and complex words more than one morpheme. However, derived words and compounded words can’t be defin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orphemes, which is a natural consequence that roots and affixes are consisted of more than one morpheme. Therefore, to define the derived words and compounded words without contradiction to morpheme, the concept of immediate constituent(IC) must be introduced. With the help of IC, derived words can be defined as the words which have an affix among IC. In the same manner, compounded words can be defined as the words which have only roots

among IC.

Finally, morpheme can be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word-formation. The process of word-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kinds based on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number of morpheme. One i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morpheme, such as derivation and compounding. Another is the changelessness of the number of morpheme, such as internal modification and zero modification. The other is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morpheme, such as deletion and blending. In particular, blending presupposes truncation and compounding. On this case the truncated elements are not always a morpheme. Therefore blending as a process of word-formation brings up a matter of analysis of morpheme in output words.

Key words: root, base, affix, simple word, complex, compounded word, derived word, derivation, compounding, internal modification, zero modification, deletion, blending, truncation